

## 순환형 자원관리 체계 구축에 주력 통찰력있는 시각으로 세계 환경 동향 파악



고재영  
한국환경자원공사 사장

“지금까지 제가 축적해 온 모든 경험과 지식을 동원하여 공사가 큰 걸음을 뚫 수 있도록, 더불어 국가 환경정책 및 환경산업 발전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청이 발족된 1980년부터 현재까지 국토 환경 보전과 국가환경정책의 발전에 노력해 온 고재영 환경자원공사 사장의 취임 소감이다.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설립 이후 폐비닐·농약 빈병 수거 처리에서 자원순환정책 집행으로 업무범위를 확대해나가는 모습을 지켜봐 온 고재영 사장은 지난 6월 공사와 함께 도약하고자 한국환경자원공사 사장 공모에 도전, 신입사장으로 취임했다.

고재영 사장은 27년 여간 환경부에서 일하면서 적극적이고 독창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왔다.

기존의 규제·단속 위주의 업체관리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육성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힘쓴 결과, 환경마크제도 도입('91),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정착('95), 생산자 스스로 폐기제품을 재활용하는 자발적 협약 체결('00)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다.

뿐만 아니라 최초의 장기환경기술개발사업('92~'01)인 G-7 프로젝트 계획 수립('91) 및 수도권 매립지 건설('86~'90), 선진적 사전오염예방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4대강 종합대책 수립('96),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05), 환경건설팅업 등록제 도입('06) 등의

성과를 거두면서 환경정책 업무의 선진화에 기여해 왔다.

대통령 표창('90)과 홍조근정훈장('05) 등을 수상하면서 업무에 대한 공로를 평가받기도 한 고재영 사장. 그는 “정부·기업·국민·개인 어느 한 쪽의 노력만으로는 환경이 살아나지는 않는다”며 “모든 주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환경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고 사장은 “전 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현실은 이미 무역 규제같은 경제적인 측면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감상적으로 대처해서는 안된다”면서 “냉정하고 통찰력 있는 시각으로 환경을 둘러싼 세계 동향을 파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고재영 사장은 한국환경자원공사가 국민을 위한 단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정체되지 않는, 주변 상황의 빠른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생각 아래 직원들에게도 항상 긴장감을 유지할 것을 당부한다. 또한 모든 직원이 현재 공사가 맡고 있는 업무에 만족하지 않고 분명한 전략개념을 바탕으로 현실성 있는 꿈을 꿀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재임기간 동안 ‘환경자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폐기물이라는 한정된 개념이 아니라 보다 큰 차원의 자원 관리를 위해 제품의 설계 및 생산에서부터 유통, 소비, 폐기단계의 전 과정을 걸쳐 자원의 재순환을 유도하는 정책운영, 관련 산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는 고재영 사장. 그는 폐기물·자원에 대한 종합관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공사만의 특화된 업무 역시 꾸준히 개발하는 한편,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및 검사업무’, ‘폐기물처리시설 기술 진단업무’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PCBs를 비롯한 유해화학물질의 시스템 구축을 하는 등 공사의 업무 영역을 넓혀나가 “순환형 자원관리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환경정책도 점점 세분화되고 엄격해지고 있어 업계로서는 불편함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결국 우리 자녀에게 더 밝은 미래,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한 미래를 안겨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업계에서도 국가 환경정책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영 사장은 포장산업계에서는 환경 보호를 위해 친환경적이고 기능적인 포장재재가 개발돼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한국환경자원공사는 지난해 11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플라스틱시험과 포장 검사업무에 관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아 현재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포장산업 관계자 모두와 함께 연구하고 발전하는 기관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히는 고재영 사장, 업계는 한국환경자원공사와 고재영 사장의 활약에 주목하고 있다. 

박초혜 기자